'핀테크', 금융업 판도 흔든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는 이제 금융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적인 금융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수많은 혁신을 시도하는 한편, 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모바일 결제는 물론, 전통 금융 상품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핀테크 육성 방안을 담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들도 핀테크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에 나서는 등 내년부터 핀테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티머니' 용돈 이미 일상화…'핀테크 혁명' 전초=김모(38·여)씨는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게 용돈을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인 티머니로 주고 있다.

김씨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면 잃어버리거나 엉뚱한데 돈을 쓸까 봐 걱정되는데, 티머니는 그런 걱정이 적다"고 말했다. 티머니를 교통비 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서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티머니를 핀테크로 보는 인식은 적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생활습관 변화를 핀테크 혁명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는 SKT(시럽), KT(모카월렛), LG유플러스(스마트월렛) 등 이동통신사들이 현금과 신용카드, 각종 포인트카드 기능을 흡수한 '전자지갑'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들도 앞다퉈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네트워크의 우위를 기반으로 모바일결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하나은행(N월렛) 등 시중은행은 송금 기능까지 더해 경쟁력을 더했다.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는 방대한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송금과 결제 기능을 갖추면서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교통카드였던 티머니도 스마트폰 안으로 옮겨간 지 오래다.

◇정부 '핀테크' 중점산업 육성키로…은행들도 본격 경쟁 채비=핀테크 혁명에 둔감했던 정부와 시중은행도 최근 들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이슈와 맞물려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의 한 축으로 '금융 역동성'을 꼽았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종의 규율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핀테크 혁명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핀테크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었거나 조만간 신설할 예정이다. 결제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PG사나 다음카카오 등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전자지갑 서비스를 내놓기도 한다.

권선주 기업은행장도 최근의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 흐름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옴니채널'(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이용환경)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핀테크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전자화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간편성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지점에서 직원들이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뱅크 월렛 카카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16개 시중은행이 공동 참여한 이 서비스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도 10만원 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모바일 송금·결제 기능 갖춰
은행·카드사 비슷한 앱 출시
정부, 내년 중점산업 육성키로

주택연금·실버보험 연계 상품 내년 출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의 의료비 보장 상품을 연계한 상품이 내년 중에 출시된다. 연계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1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28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나온다.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에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일반 보험상품 가입 때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 중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보험으로 의료비 위험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2015년 증시 전망

달러화 강세·저유가 … 美 경기회복 변수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2014년 증시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장의 관심은 2015년 증시환경과 투자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최근 4년간 확정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KOSPI 등락범위는 PER기준 11.3~13.1배이고, 이를 고려 시 1900~2250포인트 밴드를 예상한다. 연중 등락은 상저하고를 전망한다.

1분기는 BOJ, ECB 등의 통화정책과 극도로 부진했던 13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전망한다. 다만, 2분기는 1분기의 실적 부담과 미국 출구전력 인접 우려로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무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하반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을 토대로 점진적 회복 장세를 기대한다.

2015년 국내 기업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그에 준하는 이익 성장을 자신하기 어렵다. 주요 수출대상인 신흥국의 잠재적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한계돌파 기업보다는 바닥탈출 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형주 섹터는 유가 반등과 신흥국 리스크 완화 요인이 소재·산업재 섹터의 낙폭을 만회할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소형 섹터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전환 수혜주와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사물인터넷 주도주를 주목한다.

주주정책 변화에서 투자기회도 확보될 것이다. 내년에는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14년이 주주이익환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간이었다면, 2015년은 기업과 시장 전반의 변화를 입증할 시점이다. 따라서 주요 연기금 보유비중이 큰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높은 저배당 대형주, 국내 고배당 인덱스 및 해외 자사주 매입 상위기업 투자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글로벌 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점진적 경기회복세의 가시화, 선진국 중앙은행간 통화정책 차별화, 신흥국 내 양극화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시장 변수로 본다면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펀더멘탈과 유동성에 따라 시장간 편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승자는 단연코 중국 본토증시였다. 상해종합지수는 연초대비 40%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자산시장 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중국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금리인하,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후강통 시행은 상해 A주 상승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기업 실적 개선세가 미미하고 성장속도 또한 둔화되는 점을 들어 증시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은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세계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하락, 주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역으로 중국의 자원 외교 확대, 위안화 국제화의 초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7년간 눌려 있던 증시가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이기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 되리라 본다. 상해증시 외국인 투자비중은 아직도 4% 수준에 불과하기에 다가오는 을미년에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다면 중국 본토주식 편입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SAMSUNG 삼성증권

보험금·보험료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 연장

내년부터 … 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 청구 간소화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바뀐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는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뀌어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크게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한편 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

GA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거나, 거꾸로 GA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설계사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 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 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융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1억5천, 융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융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융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 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 분
올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완비
주변주차가능
임대료저렴함
(보3천 130만)
상무지구 상가
5층 임대100평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상무점 · 운암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초 개강(금,토)
금 오전10시~오후 7시
토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새대
교육화 실전가능
경매교육
한국경매학원
상무지구 12월8일 개강
매주 월요 개강
월 오전10시~오후 7시
평생 최고의
스터디반 모집중
(입찰부터 매매까지)
010-6670-9800
상무점 062)382-5500
서구 치평동 1233-12번
운암점 062)513-4900
북구 운암동 434-29번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광산구 우산동 (토 23.82㎡,건54㎡) 감정가 1억3천2백 최저가 4천7백
② 서구 화정동 (토 372㎡,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건 631㎡)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건 106㎡) 감정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⑦ 광산구 신창동 (토 92.6㎡,건 185㎡)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
⑧ 서구 화정동 (토 17㎡,건 53㎡) 감정가 1억8천 최저가 2천6백
⑨ 광산구 수완동 (토 46㎡,건 148㎡) 감정가 2억8천 최저가 1억9천9백
⑩ 동구 계림동 (토 445㎡,건 1558㎡)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5천
토 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변 41억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정가 16억2천 최저가 11억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자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